

지구를 떠난 ‘노라’

- 김초엽 SF소설의 여성 떠남과 출구 탐색

이 시 아*

요약

본 논문은 헨리크 입센의 『인형의 집』 속 주인공 노라(Nora)의 가출 모티프가 19세기 이후 다양한 문화권에서 어떻게 재생산되어 왔는지 살펴보고, 특히 한국 여성 SF작가 김초엽의 작품 속에서 이 모티프가 어떤 방식으로 변주되고 있는지를 고찰한다. ‘노라’는 단순한 가정 탈출자가 아니라 근대 여성의 자아 각성과 주체 형성의 상징으로 논의되어 온 만큼, 본 연구는 ‘노라 가출’ 모티프가 오늘날 과학기술, 젠더 정치, 윤리 공동체 담론과 결합하면서 새로운 여성의 ‘떠남’ 서사로 확장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김초엽의 첫 소설집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에 수록된 작품 속 주요 여성 인물들이 가부장적 억압에서 벗어나 기술과 감정, 공동체를 매개로 신세계를 창조하려는 의지와 실천에 주목한다.

‘노라 가출’ 모티프의 현대적 전환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세 가지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첫째 기존 질서에 대한 인식 전환을 뜻하는 ‘인지 도약’, 둘째 기술을 통해 자율성과 자기 재구성을 추구하는 ‘기술적 역량 강화’, 셋째 연대와 돌봄을 기반으로 하는 ‘여성 공동체 구축’이 그것이다. 김초엽의 SF소설은 이 세 요소를 통해 전통적인 여성 주체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생존 방식과 윤리 구조에 대한 상상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특히 윤리에 기초한 유동적 공동체와 ‘포스트 노라’ 모델은 젠더와 기술이 교차하는 오늘날 문학 담론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가 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노라’라는 여성 인물의 상징성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한 문학적 상상이 현대 여성 SF소설을 통해 어떻게 재탄생하고 있는지를 조망한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서사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사회에 대한 비판적 사유

*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문예창작전공 박사수료

와 실천적 대안을 문학적으로 구현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 김초엽의 작품 속 ‘떠남’은 더 이상 소극적 탈주의 행동이 아니라, 능동적 세계 창조와 출발점으로 기능하며, ‘포스트 노라’ 시대의 여성 서사 가능성을 새롭게 열어준다.

주제어: 인형의 집, 노라 가출 모티프, 김초엽, 여성 SF, 여성 공동체

목차

1. 헨리크 입센의 『인형의 집』과 그 후일담
2. 김초엽의 SF소설과 ‘포스트 노라’
3. 지구를 떠난 ‘노라’
4. 결어: ‘포스트 노라’의 의미와 SF적 여성 주체의 재구성

1. 헨리크 입센의 『인형의 집』과 그 후일담

헨리크 입센(Henrik Ibsen)의 3막 희곡 『인형의 집』(A Doll's House)은 1879년에 발표된 이래,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읽히고 상연된 근대 희곡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극의 주인공인 주부 노라(Nora)는 남편 헬메르(Helmer)의 중병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남편 몰래 아버지의 서명을 위조하고 크로그스타드(Krogstad)에게 돈을 빌린다. 몇 년 후 크로그스타드는 해고 위기에 처하자, 과거의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노라를 협박하고, 노라는 남편에게 들키지 않도록 고민한다. 그러나 결국 크로그스타드가 보낸 편지를 통해 진실을 알게 된 헬메르는, 노라에게 “한심한 여자”, “거짓말쟁이”, “범죄자”, “내 모든 미래를 망쳤다”¹⁾고 격분하며 모욕을 퍼붓는다. 이후 크로그스타드가 마음을 바꾸고 위기를 철회하자, 헬메르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다시 노라에게 애정을 드러낸다. 하지만 이 과정을 겪으며 노라는 자신이 가정 안에서 단지 ‘인형’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자각하

1) Henrik Ibsen, 신승미 역, 『인형의 집』, 심야책방, 2015, 132면.

게 되고, 남편과의 논쟁 끝에 집을 나가기로 결단한다. 연극은 그녀가 문을 닫고 떠나는 장면에서 막을 내린다.

노라의 단호한 떠남은 동시대 대중에게 도덕적이고 윤리적 충격을 안겨주었을 뿐 아니라, 그 함축적인 열린 결말은 후속 창작자들에게 풍부한 상상의 여지를 남겼다. 즉, '가출'이라는 행위는 대중 담론과 창작에서 반복적으로 소환되며 지지와 비판의 양가적 반응을 이끌어냈다.²⁾ 아시아에서의 초기 수용도 상이했다. 일본에서는 '현모양처' 규범과 충돌하는 개인주의의 불편함을 드러내면서도, '노라'를 여성 해방의 상징으로 부상시키는 양가적 논의 지형을 형성했다.³⁾ 중국에서는 루쉰(魯迅)의 글과 강연 등을 거쳐⁴⁾, 『인형의 집』이 '여성성'의 표지를 최소화한 보편 주체성으로

2) 대표적으로 영국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George Bernard Shaw)를 들 수 있다. 쇼는 「또 다른 '인형의 집」 이후: 베잔트 씨의 속편에 대한 속편」(*Still After the Doll's House: A Sequel to Mr. Besant's Sequel to Henrik Ibsen's Play*)이라는 작품을 집필하여 월터 베잔트(Walter Besant)가 1890년에 발표한 속편 「인형의 집—그 후」(*A Doll's House—and After*)를 직접적으로 대응하였다. 許慧琦, 『娜拉在中國：新女性形象的塑造及其演變, 1900-1930年代』(『노라』의 중국 수용: 신여성 이미지의 형성과 그 변용, 1900-1930년대), 上海三聯書店, 2024, 44-53면; Mary Christian, 「A Doll's House Conquered Europe: Ibsen, His English Parodists, and the Debate over World Drama」, 『Humanities』, 2019, 8(2) 참조.

3) 에컨대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는 1912년에 발표한 「노라는 살아갈 수 있는가?」(ノラは生きるか)라는 글에서 “노라의 실천은…불가능하다. 나는 장차 노라와 같은 여성이 출현할 시대가 올 것이라도 상상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그가 1935년에 집필한 장편소설 『나는 고양이로소이다』에서는 '인형'이라는 표현을 남편의 의지에 완전히 순응하는 아내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許慧琦, 『娜拉在中國：新女性形象的塑造及其演變, 1900-1930年代』, 上海三聯書店, 2024, 53-59면 참조. 그중에서 나쓰메 소세키의 원문은 일본 『국민잡지(國民雜誌)』, 메이지 45년(1912년) 2월호에 발표된 내용이며, 위 저서의 55면의 중국어 번역문 재인용.

4) 중국에서 『인형의 집』이 초연된 것은 1914년이었으나, 루쉰(魯迅)은 이미 1907년에 발표한 「문화편향론(文化偏至論)과 「마라시력설(摩羅詩力說)을 통해 입센의 작품을 소개한 바 있다. 또한 1918년에는 『신청년(新青年)』에서 '입센 특집호(易卜生號)를 발간했는데, 후스(胡適)의 「입센주의(易卜生主義)도 함께 수록되었다. 후스는 입센 작품의 비판 정신을 중국 대가족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와 연결시키며, 노라의 “자신을 구하라”(自救)는 고백을 입센식 개인주의의 대표적 명언으로 해석하였다. 1914년 자신의 일기에서도 후스는 노라에 대해 언급하며, “노라가 집을 나가는 것을 권장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군기권계론(群己權界論)』과 마

읽히며, 가족제도 비판과 근대적 개인의 상징으로 전환되었다.⁵⁾ 근대 조 선에서도 노라는 여성성의 탈정치화로 수용되며, 젠더 표지의 삭제와 재 등장을 반복하는 긴장을 노정했다.⁶⁾ 한편 다양한 후일담들도 지속적으로 생산되었다.⁷⁾ 21세기에 이르러서도 “노라는 떠난 후 어떻게 되었는가”⁸⁾ 라는 질문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예컨대, 2017년 브로드웨이 (Broadway Theatre)에서 초연된 『인형의 집, 파트 2』(A Doll’s House, Part 2)⁹⁾는 토니 어워드(Tony Awards) 최우수 작품상(Best Play)을 포함해 다 수 부문 후보에 오르며 동시대적 관심을 환기했다.¹⁰⁾

찬가지로 개인 자율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다”라고 서술하였다. 許慧琦, 같은 책, 75-76면.

- 5) 許慧琦, 같은 책, 62면.
- 6) 양건식과 현철의 번역으로 『인형의 가(家)』라는 제목의 『인형의 집』이 『매일신보』에 총 60회 (1921.1.25-4.3)에 걸쳐 연재되었다. 이 시기 나혜석은 삽화, 가사, 소설 등을 통해 여성을 먼저 ‘인간’으로 바라보는 입장을 표명하며, 사회의 낡은 악습에 저항하는 신여성적 태도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의 근대 조선에서는 노라를 국가와 동일시하거나, ‘개인주의 실현’이라는 서사를 “민족주의(nationality)”로 치환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승희, 『입센의 번역과 성 정치학』, 『여성문학연구』 12, 2003, 57-58면 참조.
- 7) 채만식의 『인형의 집을 나와서』(1933)에서 노라는 “여러 번의 고민과 죄책감”을 겪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결국 다시 남편의 권력 아래로 귀속된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타인에 기대지 않고, 능동적인 주체성으로” 성장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여성 주체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한편, 부정적으로 노라를 해석하는 비판적 시선은 이광수의 『노라야』(1922)와 김동인의 『무능자의 안해』(1930)가 대표적이다. 윤수미, 「노라를 통해서 본 채만식 소설의 윤리성: 채만식의 『인형의 집을 나와서』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제59집, 2023, 76면.
- 8) 루원, 홍석표 이보경 역, 「노라는 떠난 후 어떻게 되었는가」, 『루원전집』 1권, 그린비출판사, 2010.
- 9) Lucas Hnath, *A Doll’s House, Part 2*, Theatre Communications Group, 2019.
- 10) 이 속편에서 노라는 명성과 부를 모두 얻은 유명 작가가 되어, 집을 떠난 지 15년 만에 다시 가정으로 돌아온다. 그녀는 유모 앤(Anne)에게 전 남편 헬메르와의 이혼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지만, 이미 성인이 된 딸 에이미(Amy)가 결혼하겠다는 선언에 새로운 갈등과 혼란에 빠지게 된다. 이외에 대표적인 후속 창작 사례로는 오스트리아 여성 작가 엘프리트 엘리네크(Elfriede Jelinek)가 1977년에 발표한 희곡 『노라가 남편을 떠난 후 일어난 일 또는 사회의 지주』(*Was geschah, nachdem Nora ihren Mann verlassen hatte; oder Stützen der Gesellschaften*)를 들 수 있다. 본 연극은 1979년 초연이었고 제목은 헨릭 입센의 『노라 혹은 인형의 집』(1879)과 『사회의 지주』(1877)에서 유래한다. 1920년대를 배경으로, ‘인형의 집을 떠난 노라가 방적

‘노라 가출’에 대한 담론, 혹은 “노라는 떠난 후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질문과 상상은 결코 중단되지 않았다. 해석의 경로는 다양하지만, 논의의 다수는 여전히 ‘결혼’과 ‘가족’ 프레임에 수렴한다. 그러나 여성 주체의 경험은 기술과 생태 환경의 맥락에서 지속적으로 확장됨에 따라, 쉬후이치(許慧琦)가 근대 중국 맥락에서 ‘노라’ 형상을 분석한 바와 같이, 노라의 가출은 단순히 가정을 배반하는 행위가 아니라, 젠더 질서 및 사회 제도의 기성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며, 다차원적 근대성을 상징하는 텍스트로서 시대와 매체를 초월한 확장 가능성을 지닌다. 이처럼 ‘노라 가출’ 모티프는 시대와 지역을 가로질러 변주되었고, 그 논의 지평 역시 가족 내부의 사건을 넘어 근대성의 의제로 확장되었다. 또한 이런 과정에서 ‘햄릿’이나 ‘안나 카레니나’와 마찬가지로 노라는 구체적 인명을 넘어, ‘떠남’이라는 핵심 행위를 매개로 반복적 호출과 변형이 가능한 모티프로 추상화되었다.

이에 따라 본고는 수용사의 세목보다, ‘인지 도약/기술적 역량 강화/공동체 구축’의 세 축을 통해 김초엽 텍스트가 ‘노라식 떠남’을 어떻게 포스트휴먼적 여성주의의 실천 프레임으로 재구성하는지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본고는 김초엽의 첫 소설집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을 중심 텍스트를 삼아, 앞에서 논의한 ‘노라 가출’ 모티프의 서사 구조 및 의미 변화를 바탕으로, 이들 작품에서 나타나는 정체성 재고, 기술적 공간 탈주, 공동체의 구축 등 실천을 통해 형성되는 미래 윤리의 서사 지형을 탐색하여 동시대 여성 인물들이 포스트휴먼 시대의 문맥 속에서 다원적 이탈 양상을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공장에 고용되어 노동자로 일하다가 대기업가 바이강(Baigang)의 눈에 들어 고급 창녀로 전락한 뒤, 결국 은행 이사직에서 해임된 전 남편 헬메르와 재결합하게 되는 과정을 18개의 장면으로 구성해 그리고 있다. 이 대본집의 한국어판 다음과 같다. 엘프리데 옐리네, 강창구역, 『노라가 남편을 떠난 후 일어난 일 또는 사회의 지주』,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3.

2. 김초엽 SF소설과 ‘포스트 노라’

2000년대 이후 한국 SF는 뚜렷한 대중적 기반을 형성했고, 2019년을 기점으로 대표 장르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이 흐름 속에서 한국과학문학상을 통해 널리 알려진 김초엽은 핵심 작가로 평가된다. 첫 소설집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2019)은 출간 직후부터 판매 기록을 경신하며, 현재까지 누적 (68쇄¹¹⁾)를 이어가고 있다.

김초엽의 작품은 과학기술, 생태, 젠더, 사회윤리, 장애 등 다양한 이슈를 SF적 상상력으로 풀어내며, 특히 여성 중심 서사에 대한 탐색이 두드러진다. 소설 속 여성 인물들은 주로 억압적인 사회 구조나 기술 시스템 속에서 자율성을 획득해 나가는 과정을 겪으며, 전통적 가족 질서 및 젠더 규범을 해체하고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에 관한 기존 연구는 그간 포스트휴먼, 장애와 윤리, 공동체 등의 키워드로 축적되어 왔으나,¹²⁾ ‘노라’ 혹은 ‘떠남’의 관점에서 김초엽 SF를 체계적으로 논의한 작업은 상대적으로 드물다. 한편 한국 문학계에서 ‘노라’ 모티프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인형의 집』의 수용 방식, 번역사, 재현 양상 등에 집중되어 왔다. 특히 남성 지식인의 관점, 근대 조선의 신여성 형상화, 한중 비교 연

11) 본 논문의 집필 시점을 기준으로, 최신 인쇄본은 2025년 5월 1일자이며, 현재까지 별도 개정판은 출간되지 않음.

12) 대표적인 기존 연구로는 손혜숙의 「김초엽 소설의 ‘포스트휴먼’ 연구」(『전남대 어문논총』, 2023), 김윤정의 「김초엽 소설의 포스트휴머니즘과 장애」(『여성문학연구』, 2021), 김주선의 「김초엽 소설에 나타난 탈고유적 공동체 연구」(『현대문학이론연구』, 2024), 「윤이형·김보영·김초엽 비교 연구」(『여성 SF의 시공간과 포스트휴먼적 전망』, 2024), 연남경의 「여성 SF의 시공간과 포스트휴먼적 전망: 윤이형, 김초엽, 김보영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79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20), 신성환의 「한국 소설에 나타난 테이터와 알고리즘에 대한 상상력」(『동서인문』, 2023), 김재선 외 「김초엽의 SF에 나타난 새로운 존재론의 모색」(고려대학교·광주과학기술원, 2022), 최경옥의 「김초엽 소설에 나타난 테크놀로지와 시간정치」(『인간·환경·미래』, 2021), 김민석·김기창·김초엽 공저의 「기후소설에 나타난 종말의 수사학」(ScienceON, 2023) 등이 있다.

구 등¹³⁾ 다양한 틀에서 입센 극작의 영향을 분석하는 논의는 축적되어 있지만, 현대 SF와의 접점을 탐색하는 시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초엽의 첫 소설집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에 수록된 일곱 편의 작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주인공이 모두 여성이라는 공통점 뿐만 아니라, 이들 인물들이 거의 예외없이 '떠남'이라는 서사적 선택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작품들에서는 '노라'라는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각 인물이 맞닥뜨리는 갈등의 국면과 그런 곤경에 대한 대응 방식은 입센의 『인형의 집』 속 노라의 결단과 유사한 맥락을 지닌다. 즉, 김초엽 소설 속 여성들의 떠남은 단순한 도피나 회피가 아니라, 억압적 질서로부터의 해방이자 자기 정체성의 재구성을 지향하는 서사로 읽힌다. 결국 '노라 가출'은 김초엽의 세계에서 가족 맥락을 벗어난 '떠남' 서사로 재배치되며, 이는 본 연구의 핵심 해석 키워드가 된다.

김초엽 소설의 여성 인물들은 충동이 아닌 계획된 실천으로 떠난다. 예컨대, 「나의 우주 영웅에 관하여」 속 재경 이모는 우주에 가는 것보다 심해에 뛰어내리는 길을 선택했다. 그녀의 행동은 개인 정체성에 대한 각성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가출은 충동적이고 쉬운 행동이지만, 자아의 각성은 길고도 고된 생의 여정이다”¹⁴⁾는 말처럼, 김초엽 소설 속 여성들은 ‘준비된’ 떠남을 하며, “나는 내가 가야 할 곳을 정확히 알고 있어”¹⁵⁾라고 말할 수 있는, 명확한 목적지와 실행 계획을 갖춘 존재들이다. 표제작 「우

13) 선행 연구로는 김미지의 「『인형의 집』 ‘노라’의 수용 방식과 소설적 변주 양상—1920~30년대」(『한국현대문학연구』, 2003), 김우진의 「입센극 『인형의 집』 수용과 ‘노라’를 바라보는 남성 인텔리의 시선에 관한 소론」(『동서비교문학저널』, 2018), 홍재웅의 「입센의 극작술과 『인형의 집』의 현대적 의미」(『외국문학연구』, 2015), 과학기술한림원의 『인형의 집의 메모·원고가 시사하는 현대성』, ScienceON·KISTI의 「『인형의 집』에 나타난 노라의 자아 정체감 회복 과정 분석」 등이 있다.

14) 胡開奇, 「娜拉: 十五年后的归来: 卢卡斯·纳斯 『玩偶之家: 下集』」, 『戲劇與影視評論』, 2018年第5號, 102면.

15) 김초엽,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허블, 2019, 182면.

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에 등장하는 과학자 안나는 항로 폐쇄와 제도적 거절에 맞서 대기 시간을 버티고, 우주선 개조의 수단을 확보한 뒤, 결국 지구를 떠난 행동으로 이행한다. 그녀의 선택은 단순한 공간적 이탈이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며, 자기 존재에 대한 재정 의의 출발점이었다. 또한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에서 올리브 의 묘비에 “텔피의 올리브, 분리주의에 맞서는 삶을 살다”¹⁶⁾는 문장이 새겨져 있는 것은, 여성 간의 계승과 연대는, 개인의 ‘떠남’이 고립된 선택이 아니라 여성 주체들이 만들어가는 윤리적 관계망의 일부임을 보여준다.

김초엽의 이러한 ‘떠남’ 서사들은 단순한 반복이 아닌, ‘노라 떠남’의 변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떠남’이라는 모티프를 현대적으로 계승하면서, 새로운 문맥 안에서 이를 재구성하고 있다. 노라가 ‘쾡’ 하고 문을 닫는 단절형 ‘가출’보다, ‘인자-기술-공동체’로 이어지는 형식과 수단을 지닌다. 이때 기술은 외부의 보조가 아니라 재분배를 매개하는 중추 장치로 작동한다.

전통적으로 입센의 원작 『인형의 집』에 대한 해석은 “노라는 떠난 이후 어떻게 되었는가”에 집중되어 왔다.¹⁷⁾ 이러한 시각에서 김초엽의 작품을 다시 읽는다면, 김초엽 소설 속 여성 인물들의 다중적 이탈 행위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방법론적 기반을 제공하며, “노라는 떠난 후 어떻게 되

16) 김초엽, 같은 책, 51면.

17) 기존의 많은 후속 논의는 노라의 ‘가출’이 곧 몰락이나 실패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는 사회 구조의 경직성과 구질서의 강고함 때문이었다. 앞에서 설명한 듯이, 루선과 나쓰메 소세키는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노라 같은 여성이 등장할 수 있는 시대는 결코 상상하지 못하는 것”(許慧琦, 같은 책, 55면, 재인용),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면 바로 돌아오는 것이다”(루선, 홍석표 이보경 역, 『루선전집』 1권, 그린비출판사, 2010, 244면), “애석하게도 중국은 바꾸기가 너무 어렵”(루선, 같은 책, 250면)다고 진단한 바 있다. 반면에, 루카스 네이스의 후속극 『인형의 집, 파트 2』는 결혼 제도의 한계를 완전히 돌파하지는 않았지만, 노라가 “너를 위해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는 중이야”(“the kind of world I’m trying to make for you”, Lucas Hnath, 같은 책, 102면)라 선언하는 장면을 통해 주체적 결단의 성취를 제시한다.

였는가”라는 질문을 포스트휴먼 (Post-Human) 사회와 미래 윤리 담론으로까지 확장시켜 준다. 나아가 새로운 시대 여성 SF 서사 속 ‘포스트 노라 (Post-Nora)’¹⁸⁾ 모델을 형성하며, 여성 출로 담론의 확장을 위한 학술적 토대를 제공한다.

3. 지구를 떠난 ‘노라’

1) ‘노라’는 왜 떠났는가: 인지 도약

‘인지 도약(Cognitive Leap)’¹⁹⁾은 개인이 급변하는 사회 제도나 기술 환경과 마주할 때, 기존의 의식 구조, 가치 체계, 주체성에 대해 근본적인 전환을 경험하는 과정을 뜻한다. 이는 권력 질서의 재편 속에서 자아 인식의 틀 자체가 구조적으로 재구성되는 깊은 변화를 의미한다. 여성주의 담론에서는 이러한 도약이 종종 젠더 정체성의 재고, 수행적 역할의 해체, ‘타자’로서의 위치를 벗어난 ‘자기 명명’의 실천으로 이어진다. 예컨대, 샌드라 하딩 (Sandra Harding)은 여성의 주체화가 기존의 과학과 사회 질서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해 가능해진다고 본다.²⁰⁾ 또한 도나 해러웨이 (Donna Haraway)는 젠더 정체성과 주체성은 고정된 본질이 아니라 기술

18) ‘포스트 노라(Post-Nora)는 본 논문에서 새롭게 제시하는 비평적 개념으로, 입센의 『인형의 집』에 나타난 ‘노라’ 모티프를 계승하면서도 SF라는 장르와 포스트휴먼 담론 속에서 기술, 윤리, 공동체를 매개로 다차원적 공생 구조를 구축해 나가는 여성 서사를 지칭한다. 이 개념은 전통적인 ‘가출자로서의 ‘노라’를 넘어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구조 설계자로서의 위치를 강조하며, ‘계승’과 ‘전환’의 이중적 의미를 포함한다.

19)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인지 도약(cognitive leap)’이라는 개념은 Harding(1986)의 여성주의 인식론 및 Haraway(1991)의 사이보그 주체성 논의에서 착안하고 기존의 인식 구조와 가치 체계가 근본적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의미하며, 특히 여성주의 이론에서 자주 논의되는 주체 형성과 젠더 정체성 재구성의 맥락에서 파악될 수 있다.

20) Sandra Harding, *The Science Question in Feminism*, Cornell University Press, 1986, 137-141면.

과 인식의 경계에서 새롭게 구성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²¹⁾ 요컨대 인지 도약은 ‘타자 담론의 확인 구조’에서 벗어나 자기 명명권을 회수하는 절차이며, 그 결과 ‘떠남’은 공간 이동뿐만 아니라 담론 권력의 재분배로 가시화된다. 이 분석의 틀은 이하 재경 사례의 독해를 이끄는 기준점이 된다.

「나의 우주 영웅에 관하여」에 등장하는 재경은 프로젝트에 선발된 이후 직면한 여론 비난은 주로 두 가지 범주의 라벨에 응축되어 있다. 첫째, “한 차례 임신과 출산을 겪은 동양인 여성”²²⁾이라는 이유로 가해진 연령·젠더·인종이 교차된 시선이었다. 둘째, 만성 전정기관 장애를 근거로 인한 신체 ‘부적합’ 판정이었다. 이러한 특정적 정체성은 그녀에게 비정형적 존재라는 낙인을 씌우며, 제도적 장벽과 타자의 시선을 동시에 마주하게 만든다. 이 둘은 그녀의 전문성과 훈련 이력을 지우고, 몸 자체를 ‘적격/부적격’의 경계로 환원하는 담론적 장치로 작동했다. 이때 ‘합격선’은 중립적 기준이 아니다. 대표성의 폭력(유일한 여성에게 부과되는 도덕적 부담)과 신체 규범의 정치학(가장 취약한 몸을 우선 배제하는 절차)이 결합해 재경을 끊임없이 증명의 위치로 밀어 넣는다. 재경의 선택은 바로 이 국면에서 이루어진다.

재경의 인지 도약은 무엇보다 자기 신체에 대한 재평가에서 시작한다. 선발 초기에는 만성 전정기관 문제로 인해 ‘기준 미달’ 판정을 받지만, 그녀는 “기존 신체의 적합성보다 극한의 개조 과정을 버텨낼 정신력을 더 중요”²³⁾하다는 판단에 도달한다. 더 나아가 전정 기능의 ‘비표준’이 “무중력 상태에서의 감각 적응 능력에 오히려 가산점으로 적용”²⁴⁾한 것을 학습한다. 이때 소위 ‘신체적 한계’는 결핍이 아니라 다른 설정값으로 재평가되며, 신체 훈련 장치 사용에 대한 인식도 보완이 아닌 구성적 설계로 바

21) Donna Haraway, *Manifestly Haraway*,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16, 61면.

22) 김초엽, 같은 책, 279면.

23) 위의 책, 280면.

24) 위의 책, 280면.

편다. 몸을 적격 여부로 가르는 외부 표준을 수동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몸의 규격을 정의해 나가는 움직임이 인지 도약의 첫 계단을 이룬다.

다음으로, 선발된 우주비행사 3명 가운데 유일한 여성인 재경은 대대적인 미디어 주목을 받으며 수많은 아이들의 “우주 영웅”으로 호명되었다. ‘영웅’이라는 호명은 내재한 대표성의 폭력, “유일한 여성”이 감당해야 하는 모범 상징, 합격선의 정치학 자체를 드러낸다.

사람들은 재경의 도전이 인류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재경이 터널 너머에서 우주 저편을 최초로 마주할 때 이쪽 세계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그런 거시적인 관점의 답을 기대했다. 재경은 새로운 몸에 대한 기대만 들떠 늘어놓았다. 어떤 신문에서는 재경이 전혀 프로페셔널한 우주비행사다운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신기도 했다.²⁵⁾

“사이보그 그라인딩”(Cyborg Grinding) 프로젝트의 시행 목적은 인류가 우주의 극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신체를 개조하고, 궁극적으로는 우주 개발 속도를 가속화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재경은 이러한 국가적이나 기술적 목적보다는 자신의 존재적 성장과 한계 돌파를 더 중요시한다. 인간이 “너무 불완전한 몸을 가지고 있다고”²⁶⁾ 생각한 재경은 국가와 과학, 민족을 위한 봉사의 정체성을 내려놓고, 바다로의 귀의를 선택한다. 이 선택은 도덕적 규범이나 사회적 책임의 관점에서 보면 “비난받을 수 있는 선택”이지만, 재경 개인에게는 오히려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하나의 ‘해방’이었다.²⁷⁾ 이는 단순한 이탈이 아니라, 터널을 통과하는 것(즉, 제도화

25) 위의 책, 281-282면.

26) 위의 책, 306면.

27) 유선애, 『우리가 사랑한 내일들』, 한겨레출판, 2021, 73면.

된 성공의 길)을 거부하고, 신체의 감각적 능력과 존재의 자율성을 새롭게 탐색하려는 실천이다.

재경의 이러한 떠남은 이 대표성의 폭력과 합격선의 정치학을 더 이상 내면화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영웅 서사가 기대하는 감정과 언론 구도에서 발화 위치를 스스로 옮기는 행위다. 따라서 재경의 ‘인지 도약은 개인의 일탈 선언에 머물지 않고, 같은 기준선에서 배제되던 타자적 신체들이 진입 가능한 규칙 재설계를 예고한다. 바다는 상징적으로도 의미가 크다. 환경 조건이 변형된 공간은 중력, 통제 혹은 여론이라는 지상 규칙을 잠시 소거하는 ‘예행 세계’로 기능한다. 이처럼 인지 도약은 감정적 결단을 넘어, 떠남의 행동이 연동된 실무적 설계로 완결된다. 앞장에서 언급했듯이, 그녀의 이러한 무모해 보이는 선택은 순간적 충동이 아니라 준비된 떠남이었다.

첫 번째 페이지는 지금까지 알려진 터널 시스템에 관한 메모였다.(중략)

그 다음 페이지에는 또 다른 메모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터널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 메모는 심해에 관한 것이었다.

계산식을 훑어보던 가운데 조금 머리가 식는 기분이었다. 그건 사이보 그 그라인딩으로 개조된 인체가 심해에서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를 추정하는 계산식이었다.²⁸⁾

우주비행사 선발 프로그램에 합류한 후, 재경은 혹독한 훈련을 감내함과 동시에 사회적 여론의 압력에도 맞서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표면적인 우주 비행 준비와는 별개로, 인간의 생존 가능성을 우주가 아닌 심해에서 탐색하는 이중적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재경은 공인된 우주인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체력을 얻은 동시에, 스스로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권리를 되찾기 위해, 심해에서 자립 생존 가능성에

28) 김초엽, 같은 책, 304면.

관한 정교한 기술 계산을 수행했다. 그녀에게 우주 프로그램은 단순한 과학 임무가 아니라, 다른 방식의 삶을 준비하는 기술적 자원이었다. 마침내 우주로 출발하기 전날 밤에 탈출에 가장 적절한 시점임을 판단하고,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에 따라 센터를 이탈한 후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하지만 심해로 내려가는 순간, 그리고 새로운 몸이 극한의 환경에서 더 편안하다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가운은 놀라운 해방감을 경험했다. 만약 재경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면, 재경이 정말로 원했던 것은 터널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간으로서의 재탄생, 그러니까 사이보그 그라 인딩 그 자체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²⁹⁾

재경은 기술 체계에 순응하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재정의한다. 여성 주체가 더 이상 기술에 의한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객체가 아니라, 신체 재구성과 선택의 주체로 자리매김한다. 이로서 기술 권력은 비로소 여성 주체에 의해 다시 쓰여진다. “이모에게는 우주에 가지 않는 것이 해방인 게 아니었을까?”³⁰⁾ “이모는 어쩌면 그 굴레 자체를 벗어나는 하나의 방법을 시도해봤는지도 몰라.”³¹⁾라는, 가운의 추측을 통해 표현된 이런 장면들의 공통점은 ‘떠남’의 선행 조건이 인지 틀의 재설정이란 점, 곧 언어와 지각의 프레임 전환이 먼저라는 데에 있다. 작품 속 화자는 재경을 두고 ‘영웅이 우주에 가지 않는다면 무엇이 남는가?’라고 되묻지만, 재경은 ‘영웅’이라는 호명의 조건 자체를 의심한다. 우주선에 오르는 몸이 아니라, 규칙을 다시 설계하는 몸이야말로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를 내가 명명하는 권리가 먼저 회복되어야 떠남이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29) 위의 책, 306면.

30) 위의 책, 307면.

31) 위의 책, 309면.

재경의 선택은 자기 한계의 ‘극복’만을 겨냥하지 않는다. 가장 취약한 몸을 먼저 배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해 온 표준을 거꾸로 비추어, 다양한 신체 조건을 수용할 운용 설계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떠남은 그래서 개인의 이탈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진입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드는 행위가 된다. 서사는 이 지점에서 떠남을 성공과 실패로 재단하지 않고, 어떤 규칙이 어떤 몸을 가능하게 했는가를 드러내는 윤리적 사건으로 재구성한다. 재경을 ‘영웅’으로 호명하던 아이들의 시선은, 그녀가 발사에 성공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다른 규칙을 설계하려는 용기로 재조정된다. 인지 도약은 이렇게 결과 중심의 평가에 매이지 않고, 평가 체계 자체를 바꾸는 시도로 가치를 얻는다. 요컨대 재경의 떠남은 실패의 표지가 아니라, ‘인지 전환’으로 이어지는 ‘포스트노라’적 떠남의 정형이며, 고전적 모티프를 동시대적 실천으로 재부호화한 사례다.

이렇게 재경의 서사는 고전적 ‘가출’의 도식을 넘어선다. 떠남은 몸을 새로 읽고, 타자가 부여한 호명을 거부하며, 실행 가능한 절차로 조직되고, 결국 규칙의 재설계로 파급되는 연쇄적 과정이 된다. 해당 잡품집의 다른 단편들과의 접점도 이 연쇄 속에서 보인다. 「관내 분실」의 디지털 이탈은 기억의 소유권을 다시 배치함으로써 존재의 경계를 재기입하는 예이고,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의 결단은 폐쇄된 항로 바깥에서 자기 경로를 연산하는 사례다. 또한 그녀가 갈망한 바다에서의 ‘다른 규칙’은 이후 장에서 보게 되듯, 뒤에서 논의할 안나의 기술 설계와 릴리의 공동체 설계로 확장된다.

2) 노라는 준비되었는가: 기술적 역량 강화

‘기술적 역량 강화(Technology Empowerment)’란 기술을 단순한 도구적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관계, 정체성 구조와 권력 분배를 재구성하는 매개 기제로 간주함으로써, 여성들이 기술 시대에 기존의 제약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술에 대한 재해석은 단순한 도구 사용권을 넘어, 사회 구조 개입과 신체 정치의 재배열까지 포괄하는 정체성 정치의 한 방식으로 확장된다. 다시 말해, '기술적 역량 강화'는 기술 사용권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기술을 통해 젠더 질서에 개입하고, 신체 정치 및 정체성 구조를 다시 쓸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지칭한다. 여성주의 담론에서 기술은 한때 가부장 권력의 연장이자 여성 억압의 수단으로 여겨졌지만, 이후 주변적 주체가 자율성을 실현하기 위한 중개 기제로 재해석되며 지식과 권력을 재분배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김초엽의 작품은 이러한 '기술-윤리' 교차지점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이다. 소설에서 기술은 생존 기능을 넘어선 윤리적 실천의 장(場)이며, 친족 구조와 주체 존재 방식을 재구성하는 기반이 된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의 안나는 “지구에서의 삶도 마음에 들었지만, 우주선을 타고 슬렌포니아로 가서 “아예 다른 행성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³²⁾하며 가족과 함께 여생을 보내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품고 있다.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 안나는 총 두 차례의 ‘떠남’을 경험하며, 모두에서 기술이 결정적 변수로 작동한다.

첫 번째 떠남에서 기술은 그녀의 이탈을 가로막는 장애였다. 곧, 냉동수면 기술 개발을 완성하기 위해 지구에 남아야 했기에 가족들과 함께 다른 행성으로 이주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없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이 첫 번째 떠남이 온전히 안나의 자발적 선택이 아닌 것이다. 오히려 가족과의 합류를 유예하고 미완의 연구를 지속하기로 한 결정은, 결과적으로 자기 주권의 표명으로 읽힌다.

이에 비해 두 번째 떠남은 안나의 자기 결정이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 기술 개발을 마치고 최종 보고까지 완료한 뒤, 우주선 탑승을 통해 떠나기로 결심하지만, 마지막 항공편에 탑승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통보

32) 위의 책, 160면.

를 받으면서 항로가 폐쇄되고, 그녀는 장기적인 대기 상태에 들어간다. 이 지연의 시간 속에서도 기술은 핵심 요소로 남는다. 냉동수면 기술 덕분에 생명을 유지하며 현재에 이르렀고, 동시에 폐쇄된 우주정거장의 기본 운영을 자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으며, 끝내 자신이 개조한 우주선을 통해 지구를 떠나겠다는 목표를 실현했다.

다시 말해, 한 번은 떠남을 가로막던 기술이, 다른 한 번은 떠남을 가능하게 만드는 인프라로 기능하며 안나의 '떠남' 서사를 관통한다. 특히 두 번째 떠남에서 뜻밖에도 안나가 슬렌포니아로 향하는 마지막 우주선의 탑승 시간에 늦은 것은 실패로 보일 수 있으나, 안나는 이를 단순한 좌절로 받아들이지 않고, 즉시 재도전을 위한 체류와 준비에 돌입한다. 그녀는 정거장에 머무르며, 언제든 출발할 수 있는 기술적이고 신체적 조건을 유지한 채 다음 기회를 기다렸다. 슬렌포니아로 향하는 전용 항로는 이미 오래 전부터 폐기되었고, 안나는 반복된 냉동수면 속에서 무려 백년이 넘는 세월을 흘러보내며 여전히 우주선을 기다리고 있다. 이처럼 안나의 이야기는 '출발조차 하지 못한 떠남'으로서, 여성 주체의 욕망이 어떻게 우주적 차원에서도 지연되고 있는지를 암시한다.

“설령 그런 게 지금 발견되어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신이 100년도 넘게 동결과 해동을 반복하는 동안 거기 있는 당신 가족들은 이미 생을 다 누리고 떠났어요.”³³⁾

시간은 안나의 바람과는 달리 가혹하게 흘러가고, 그녀가 기다리는 동안, 정작 가족은 이미 그곳에서 삶의 여정을 마쳤거나, 더 이상 안나를 기억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남성 직원의 반복적인 설득 끝에, 안나는 가족과 함께 슬렌포니아에서 여생을 보내고자 했던 본래의 꿈을 포기하고, 생전이 아닌 사후에 가족과 재회하겠다는 방식으로 자신의 바람을 양보한다.

33) 위의 책, 177-178면.

“그래도 가보고 싶은 거야. 한때 내 고향이 될 수 있었을 행성을. 운이 좋으면, 남편 옆에 묻힐 수도 있겠지.”³⁴⁾ 이는 여성 주체의 욕망이 타자의 판단과 통제 속에서 끊임없이 조정되고 축소되는 과정을 상징한다. 그러나 안나는 가족이 이미 사망했을 수도 있다는 설득을 온전히 수용하지 못한다. 그녀는 진실을 스스로 확인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품고 있으며, 이는 여성 주체가 주어진 정보와 현실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진실을 탐색하고 의미를 재구성하려는 실천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

“이제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거라네. 내가 여전히 동결 중인지, 사실 이 모든 것이 몹시 추운 곳에서 꾸는 꿈은 아닌지, 내가 사랑했던 이들이 정말로 나를 영원히 떠난 게 맞는지, 그들이 떠난 이후로 100년이 넘게 흘렀다면 어째서 나는 아직도 동결과 각성을 반복할 수 있는지. 왜 매면 죽지 않고 다시 깨어나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고, 얼마나 많이 세상이 변했는지. 그렇다면 내가 그들을 다시 만나는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닌지.”³⁵⁾

그녀는 현실과 꿈의 경계를 분명히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로, 이는 냉동 기술이 초래한 생리와 심리적 혼란을 드러내는 동시에, 존재 상태의 단절성과 부유를 암시한다. 그녀가 처한 시간은 더 이상 인류 사회의 표준 시간과 동기화되지 않으며, 그녀의 신체는 기술에 의존해 생명 순환을 유지하는 반면, 정서는 가족이 떠난 그 순간에 정지되어 있다. 이처럼 그녀는 생존과 정서 사이의 이중적 비동기성 속에서, 시간적 이탈과 감정적 정체라는 이질적 삶의 조건을 살아가고 있다.

이는 ‘기술적 생존’과 ‘정서적 냉동’이라는 대립 구조를 형성한다. 안나

34) 위의 책, 178면.

35) 위의 책, 180면.

가 도피하고자 한 것은 ‘고독’이며, 추구한 것은 내면적 ‘귀속감’이었다. 지구는 그녀가 태어나고 자란 물리적 공간이지만, 가족의 부재로 인해 더 이상 ‘고향’이 될 수 없었다. 그녀가 도피하고자 한 억압은 단일한 차원의 사회 구조나 제도적 폭력이라기보다, 심층적인 고독 경험과 귀속감 상실이었다. 즉, 억압의 정체는 외부적 제약이라기보다, 공동체 상실 이후 남겨진 개인이 마주해야 하는 실존적 공허에 가까웠다.

가족이 집단적으로 떠나고 수백 년 동안 돌아오지 않음에 따라, ‘집’이라는 개념은 이미 전이된 상태였다. 기술은 “우리 문명을 발전시킨 만큼이나 위협하고 있다”(it was endangering our civilization almost as much as it was benefitting it)³⁶⁾는 지적처럼, 지구는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닌 기억과 단절의 상징이 되었으며, 그녀의 ‘집’은 가족이 향한 먼 별, 감정적 귀속이 투영된 타향에 존재한다. 이처럼 안나에게 우주 정거장은 귀속의 종착점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하기 위한 인내의 장이자 감정적 재배치의 중간 기착지였다. 안나는 이 인식의 전환을 명확히 인지했기 때문에, 백 년이 넘도록 우주 정거장에서 대기하며 기어코 출발하려 한 것이다. ‘떠남’이 명명권의 회수 단계에서 실행 층위의 구현 문제로 전환되는 순간, 기술과 자원 배치가 결정적 변수로 작동한다.

안나는 지구를 떠나기 위한 준비가 가장 철저하게 이루어진 인물이다. 그녀는 지구에 남아 연구를 수행하던 시기부터 이미 떠날 결심을 굳혔고, 장기간에 걸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두었다. 반복적인 냉동수면, 긴급 상황에 대비한 협약 구축, 가족과의 재회를 위한 정서적 설계까지, 안나는 자신의 생애 전환을 과학과 기술을 통해 완성해낸다.

“기다리기 위해서는 지겹도록 잠을 많이 자야 했지. 기다릴 결과를 확인해야 했으니 가끔 깨어날 필요는 있었지만 말이야.”

36) Hans Zinsser, *Rats, Lice and History*, Routledge, 2007, iiv면.

그제야 안나에게서 회미한 유기물질의 냄새가 느껴졌다. 노인의 체취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마도 첨단 기술의, 아니, 이미 오래전의 기술이 되어버린 그것의 부산물인지도 모른다.³⁷⁾

우주선의 도착을 기다리기 위해, 안나는 자신이 개발한 냉동수면 기술로 자신의 수명을 연장했고, 동시에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해 이미 폐기된 우주정거장을 관리함으로써 이를 떠남 이전의 생존 공간으로 삼았다. 결국 그녀는 남성 직원과의 협상을 통해, 그가 조종석으로 향한 틈을 타 개인 우주선을 조용히 작동시키고 이탈한다. 아무런 작별 인사도 없이, 쿨한 뒷모습만을 남긴 채 안나는 자신만의 출발을 완수한다.

“떠나신다는 말씀은, 이제 함께 지구로 가지겠다는 말씀입니까?”

“나는 내 개인 우주선을 가지고 슬렌포니아로 가겠네.”

(중략)

“그러지 마시고, 그냥... 함께 지구로 가지죠.”

“나는 내가 가야 할 곳을 정확히 알고 있어.”³⁸⁾

위에서 서술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겉으로 보기에 단순한 돌발 행동 같지만, 그녀의 출발은 오랫동안 해온 준비와 치밀한 설계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항공 스케줄의 정밀한 분석, 수차례에 걸친 냉동 수면과 각성 반복, 개인 우주선의 개조와 은폐 작업 등 그녀의 실행은 ‘준비된 떠남’의 전형이었다. 이것은 단지 물리적 출발이 아닌, 현실 체제에 대한 비판적 응답이기도 하다. 교통망의 축소, 관료주의의 비효율, 공공재로서의 우주 접근권 상실 등, 기술적 시스템과 정책 결정 구조의 오류에 맞서 그녀는 스스로 새로운 탈출 통로를 구축한 것이다. 이처럼, 안나의

37) 김초엽, 같은 책, 174면.

38) 위의 책, 182면.

떠남은 입센의 노라처럼 ‘쿵’ 하고 문을 닫는 상징적 이탈에 그치지 않는다. 안나는 아예 그 낡은 문을 해체하고, 자신만의 전승 장치를 만들어냄으로써 기존 질서 자체를 다시 구성한다. 이러한 지연형 떠남은 ‘대개체-개조’의 3단계를 통해 단선적 도피 서사를 치환함으로써, 떠남을 일회적 단절에서 설계된 실천으로 재서술한다.

이러한 기술 기반의 ‘준비된 떠남’은 김초엽 소설 속 여성 인물들을 “떠난 후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수동적 궁금증의 대상으로 남기지 않는다. 오히려 독자들은 질문하게 된다. 그녀들은 떠난 후 어떤 새로운 세계를 창조했을까? 어떻게 자기 자신을 실현했을까? 이는 곧 이탈의 방향을 상상이 아닌 창조로 전화시키는 여성주의적 상상력의 구현이며, 기술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결정적 매개체였음을 시사한다. 물론 기술은 중립적 해방 장치가 아니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조직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윤리적 귀결을 낳는다. 안나의 사례는 그 조직화의 주도권이 여성 주체에 이양될 때 ‘떠남’이 지속 가능한 설계로 전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김초엽의 서사에서 기술은 더 이상 중립적 도구나 통제 장치가 아니다. 그것은 주체가 자율성을 실현하고, 억압적 질서 바깥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능동적 실천의 경로이자, 존재론적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윤리적 기반이다. 이러한 여성들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기술을 매개로 새로운 자아를 구성하고, 사회적 억압에 저항하는 능동적 행위자로 등장한다. 이들은 기술을 통해 젠더와 종의 경계라는 규범을 전복하며, 스스로의 삶을 재서술하는 존재로 재탄생한다. 이러한 여성 인물들의 서사는 “본래의 순수성에 근거한 생존이 아니라, 자신을 ‘타자’로 규정하는 도구들을 다시 붙잡아 그 도구로 세계를 새로이 표지하는 힘에 관한 것”(not on the basis of original innocence, but on the basis of seizing the tools to mark the world that marked them as other)³⁹⁾이다. 여성이 과거

39) Donna Haraway, *같은 책*, 173면.

자신을 규정하고 억압했던 도구를 오히려 자신의 해방 수단으로 재진유하는 방식, 즉 기술을 통한 자기 재정의의 상징한다. 여기서 기술은 '떠남'의 외부적 보조가 아니라, '떠남'의 윤리적 함의로 제도화되고 지속 가능해진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에 등장하는 안나는, 『인형의 집』에서 노라가 문을 '쾅' 닫고 떠나는 장면처럼, 명확한 도착지를 알 수 없는 이탈을 감행한다. 하지만 작품의 복선과 서사 흐름을 고려하면, 안나는 마침내 자신이 그토록 염원하던 행성에 도달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결국 안나의 결말은 '떠남'으로 수렴하지 않으며, 서사적 장치 속에서 확장된 미래를 향해 열려 있다.

엔진실에 도착한 남자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정거장이 얼마나 잘 관리되었는지를 보며 새삼 감탄했다. 작동 정비 기능이 있다고 해도 결국 엔지니어의 손이 닿지 않으면 이 정도로 잘 유지되기는 어려웠다. 노인은 본인의 연구 분야 외에도 다방면의 재주를 가진 모양이었다.⁴⁰⁾

남성 직원의 눈에 비친 안나의 “낡은 셔틀에는 아주 오래된 가족 장치와 작은 연료통 외에는 붙어 있는 게 없었다. 아무리 가속하더라도, 빛의 속도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안나의 뒷모습은 자신의 목적지를 확신하는 것처럼 보였다.”⁴¹⁾ 이는 무모한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과 기술적 계산 끝에 얻어진 결과였다. 안나는 딥프리징(Deep Freezing) 전문가로서, “숙련되지 않은 조종사의 짧은 판단 착오만으로도 충돌 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만⁴²⁾, 수년간 항공기지를 혼자 안정적으로 운영해 온 인물이다. 그녀의 이러한 능력과 경험을 고려하면,

40) 김초엽, 같은 책, 184-185면.

41) 위의 책, 187면.

42) 위의 책, 183면.

외견상 낯아 보이는 우주선 역시 이미 그녀가 정밀하게 개조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그녀가 “커다란 위성들 사이에서...(중략)...파편들을 피해 움직이는 것”⁴³⁾이고, ‘언젠가 정말로 슬렌포니아에 도착할지도 모른다’⁴⁴⁾는 희망적인 추정도 가능하다.

3) 노라는 떠난 후 어떻게 되었는가: 구질서 도전과 신세계 구축

노라는 과연 다시 돌아올 건가? 노라가 떠난 이후의 삶은 여전히 독자들의 상상 속에 머물러 있다. 루션이나 나쓰메 소세키 등은 노라의 퇴장을 비판적으로 해석했다. 그 이유는 당시 사회 구조 안에서 개인의 힘만으로 기존 질서를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노라는 결국 돌아오거나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운명론적 결말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한 SF작품에서는 “현실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소설 속 인물) 대신 해주”⁴⁵⁾는 전략이 자연스럽게 동원된다. 김초엽의 SF소설 속 여성 인물들은 단순한 가정의 탈피나 반항을 넘어, 인간 중심 질서에 대한 도전과 새로운 윤리적 세계의 구축을 시도한다. 떠남이 지속 가능한 설계로 조직되는 순간, 그것이 가닿는 대상은 더 이상 개인의 거처에 국한되지 않고 떠남 이후의 질서와 윤리의 재구성으로 확장된다.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에 등장하는 릴리는 어린 시절부터 차별과 대립으로 가득한 지구에서 살아왔다. 그녀의 특정한 정체성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수많은 굴욕과 멸시를 감내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그녀가 사회 구조적으로 타자로 분류되어 왔음을 방증한다. 그녀는 얼굴에 지워지지 않는 흉측한 얼룩을 지니고 있어, 자신의 삶을 혐오하며 스스로를 “괴물과 같은 존재”⁴⁶⁾로 여기고 있었다. 외모로 인한 사회적 낙인과 편견

43) 위의 책, 187면.

44) 위의 책, 188면.

45) 유선애, 같은 책, 73면.

은 그녀를 지속적으로 주류에서 밀려난다. 그녀는 세상으로부터 받는 경멸과 혐오에 질려, 그러한 세계로부터 벗어나기를 갈망했다. 이러한 갈망은 바로 새로운 삶의 방식과 공동체에 대한 구체적 상상을 동반한 이탈이었다.

릴리 또한 두 차례의 '떠남'을 경험한다. 자신의 정체성이 이 사회에서 배제되고 있음을 자각한 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익명으로 해커 활동에 뛰어들 것이 그녀의 첫 번째 떠남이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이 보유한 유전자 편집 기술을 통해 결함 없는 아이들을 만들어, 그들에게 더 나은 세계를 선사하고자 했다. 최종적인 탈주의 경로를 확정하기 이전에 그녀가 선택한 해법은 이른바 '완전한 아이' 만들기였다. 이는 다른 아이들이 자신과 같은 고통과 혼란을 다시 겪지 않도록 하려는 예방적 조치로 이해될 수 있다. 그녀는 신체적 결핍과 결함을 제거하고, 그 위에 지적 우월성을 덧붙이기만 하면 '아름다운 세상'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다.

릴리는 태어나는 아이에게 아름다움을, 아무런 병도 갖지 않고 우직 뛰어난 특성들로만 구성된 삶을 선물하는 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종의 선행이라고 믿었던 것 같다. (중략) 릴리는 자신이 하는 일이 옳은 세상을 위한 것이라고 믿었다.⁴⁷⁾

그러나 마침내 자신의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녀는 그 아이 역시 자신과 마찬가지로 선천적인 '결함'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로써 그녀가 수행해온 배아 설계 연구는 “세상을 배제의 층계로 나누었을 뿐”⁴⁸⁾이었다는 뼈아픈 자각에 이르게 된다. 기술이 차별을 제거하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차별을 고착화하는 장치로 가능할 수 있음을 절감한

46) 김초엽, 같은 책, 45면.

47) 위의 책, 45면.

48) 위의 책, 45면.

순간이었다. 이러한 자아 성찰 끝에 릴리는 해커 활동을 중단하고, 두 번째 이탈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번에는 더 이상 결합 없는 유진자를 향한 설계가 아니라, 다양한 존재가 공존할 수 있는 공동체를 꿈꾸며 떠나는 것이다.

그녀는 얼굴에 흉측한 얼룩을 가지고 태어나도, 질병이 있어도, 팔 하나 없어도 불행하지 않은 세계를 찾아내고 싶었을 것이다. 바로 그런 세계를 나에게, 그녀 자신의 분신에게 주고 싶었을 것이다. 아름답고 뛰어난 지성을 가진 신인류가 아니라, 서로를 밟고 그 위에 서지 않는 신인류를 만들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 아이들로만 구성된 세계를 만들고 싶었을 것이다.⁴⁹⁾

릴리는 차별과 억압이 구조화된 낡은 지구 사회로부터 벗어나, 신체적 차이와 인지적 특성이 존재의 가치 판단 기준이 되지 않는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그녀가 꿈꾸는 공동체는 건전성이나 생산성을 기준으로 서열화하는 위계적 질서를 철폐하고, 존재 자체에 부여된 존엄의 평등을 중심 가치로 삼는다. 릴리의 이상은 특정 능력의 극대화나 완벽한 인간형의 복제가 아닌,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공존 가능한 사회 구조를 재편하는 데 있다.

릴리의 지구 탈출은 우열의 구분이 필요 없는 새로운 인간 문명을 설계하려는 재건 행위이자 창조적 실천이다. 릴리의 선택은 완벽주의에 대한 체계적 비판이자 적극적인 거부의 몸짓이다. 그녀는 단순히 소규모 가족 공동체의 형성에서 결합을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인류 공동체의 구조를 상상하고 실천한다. 릴리가 지구를 떠난 후 세운 이 새로운 마을은 이상적 공간임과 동시에 기존 사회와 병존하면서 대립하는 대안적 공간으로, 기존 체도에 대한 구조적 문제 제기의 장치가 된다. 이렇게 김초엽 소

49) 위의 책, 48-49면.

설의 이탈자들은 단순히 구체제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창조함으로써 기존 제도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질문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유토피아 소마을의 주민들이 성인기에 이르면 모두 “시초지”로의 순례를 수행한다는 설정이다. 이는 곧 지구로의 ‘귀환’을 뜻한다. 작품 속 주기적으로 지구를 향해 출항하는 이동선의 탑승자들은 모두 지구에서 떠났던 릴리의 후손들이다. 릴리의 후손들은 차별과 배제가 없는 새로운 세계에서의 안락한 삶에 안주하지 않고, 여전히 외부 세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지한다. 그들은 지구를 단지 과거의 공간이 아닌, 반드시 다시 방문해야 할 “시초지”로 인식한다. 비록 지구는 넓고 뒤쳐진 공간을 상징하지만, 이들은 바로 그 지점을 변화의 대상으로 삼는다. 새로 구축된 유토피아 마을 안에 갇혀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세계를 능동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의지를 지닌 것이다. 이는 단순한 종교의식이나 자아 회복을 넘어, 외부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구조를 바꾸고자 하는 고차원의 자각이다.

따라서 이들의 ‘귀환’은 결코 탈출의 실패가 아니라, 더 높은 차원에서의 ‘복귀’이다. 그 사명을 이어받은 인물은 바로 릴리가 직접 창조한 후손, 올리브인 것이다. 올리브가 지구로 귀환한 것은, 그녀가 그 세계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그녀는 자신의 후손들 또한 이러한 변혁의 여정에 동참하여, 투쟁의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하기를 희망했다.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라는 제목은 후대 마을 원주민들의 관점에서 지구로의 여정을 ‘순례’, 마을로의 복귀를 ‘귀환’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초기 이주자이자 마을을 창립한 릴리의 시각에서 본다면, 오히려 지구로 가는 길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귀환’이다. 결국 릴리의 딸 올리브와 함께 지구로 향한 순례자들 모두는 ‘귀환자’로 정의할 수 있다. 백년 후, 데이지가 자발적으로 지구로 귀환하고, 그 이전에도 릴리의 후손 올리브를 포함한 순례자들이 지구를 다시 찾는다. 올리브는 지구 귀환 이

후 평생의 동반자 델피를 만나, 그녀와 함께 지구에 남아 분리주의에 맞서 싸우고, 어머니 릴리가 남긴 유산을 재해석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그들의 떠남은 종결이 아니라, 기존 체계에 대한 외부적 보전의 개시로 이해되어야 한다. 곧 ‘떠남’은 서사의 종결과 동의어가 아니며, 행위의 공간을 전이시켜 미래의 귀환을 위한 실천적 경험을 축적하고 초석을 다지는 과정으로 기능한다.

어쩌면 지구로 떠나기 전, 올리브가 마음에 남긴 마지막 흔적이 바로 이 순례의 관습인지도 몰라. 우리는 자라면서 바깥세계에 관한 호기심을 느끼고 이 평화로운 마음 외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를 갈망하게 돼. 그리고 마침내 순례의 길에 오르지.⁵⁰⁾

마을 교육 과정은 지구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며, 학교에서는 시초지의 역사를 가르치고, 성인이 되면 순례의 길을 떠나 지구로 귀환하는 전통을 계승하도록 한다. 이러한 ‘귀환’은 단순한 회귀가 아닌, 세상을 바꾸기 위한 실천이자, 탈출의 또 다른 형태로 해석될 수 있다. 올리브의 지구 귀환은 유토피아에 대한 성찰이며, 낡은 세계로의 복귀를 통해 변혁을 실현하려는 순환적 전략이다. 그녀들의 ‘떠남’은 종착점이 아니라 변화의 순환속 중간 지점이며, ‘노라’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고, 이제 새로운 세계를 품고 돌아오고 있다. 즉, 일회적 단절에 기반한 단선적 떠남과 달리, 여기서 제시되는 것은 회환(回環)형 떠남이다. 곧 떠남으로 새로운 질서를 개척하고, 귀환으로 구(舊) 영역의 복구를 추진함으로써, 행위의 시간 구조는 선형성에서 순환성으로 전환된다. 이 소설에서의 유토피아는 완성형 공간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개인들의 실천을 통해 드러내는 가능성을 주장한다.⁵¹⁾ 다시 말하면, 소설에서 강조하는 것은 결과가 아닌,

50) 위의 책, 51면.

51) 유선애, 같은 책, 83면 참조.

변화를 향한 동기와 그 실행의 과정이다.

“우리는 그곳에서 피로울 거야. 하지만 그보다 많이 행복할 거야”⁵²⁾라는 대사처럼, 다시 돌아온 ‘노라’는 저항 속에서 고통을 체험하면서도, 자신만의 가치를 찾아간다. 김초엽 소설에서 여성들은 단순한 피신이나 안식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들은 창조자로서 구원하며 ‘더 나은 노라’가 되어 구체제에 재진입해 폐쇄적인 유토피아를 거부하고, 행동주의를 통해 구조적 변화를 모색한다. 여성의 출로는 더 이상 지구 탈출에만 머무르지 않고, 오히려 지구로의 복귀를 통해 세상을 재구성하는 데 있다.

지구로의 귀환, 혹은 가족으로의 복귀는 ‘탈출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 『인형의 집』에서 노라의 가출은 본질적으로 ‘가정의 이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사회 질서에 대한 저항과 질문이 핵심이다. 노라의 출발은 ‘어디서 떠났는가’가 아니라 ‘왜 떠나는가’, 그리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가’이다. 그녀가 출발점에서 품었던 문제의식을 실현했다면, 그 출발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노라의 출발은 그 탈주가 지향하는 ‘새로운 삶의 양식’과 ‘대안적 사회 질서’가 무엇인가를 묻게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김초엽의 소설은 “노라는 떠난 후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제시한다. 그것은 전통적인 가부장제 질서의 단순한 뒤집음이 아니라, 생산과 재생산의 방식 자체를 재구성하는 근본적인 전환이다.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의 릴리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어머니’가 아니다. 사랑이나 결혼을 거치지 않고도 출산이 가능하여 ‘모성’은 더 이상 생물학적 의무가 아니다. 릴리는 출산을 통해 어머니가 된 것이 아니며, 기술과 윤리를 바탕으로 공동체를 조직하고 아이를 양육한다. 또한 시간과 종(種)을 초월해 그것을 보호하고 이끌어간다. 이 공동체는 혈연에 기반한 전통적 가족이 아니라, 가치와 공존 신념에 근거해 형성된

52) 김초엽, 같은 책, 54면.

‘가상 친족 네트워크’(fictive kinship network)⁵³⁾이다. 여기서 ‘모성’ 혹은 ‘어머니’는 생리적 생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윤리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적 역할로 전환된다. 이런 공동체도 역시 감정적 즉흥에 의한 임시 결집이 아니라, 기술적이고 제도화된 교육과 일상적 협업의 세 경로를 통해 가치와 방법의 다중 노드 전송을 수행하는 구조이다. 이들 소설에서 여성 간의 정신적 계승과 감정적 연대는 반복적으로 강조되며, 혈연을 넘어 세대 및 종(種)의 경계를 초월하는 ‘윤리적 공동체’(ethical community)를 구성한다. 이러한 공동체는 불확실한 세계와 생존의 곤경에 직면한 상황 속에서 상호 간의 신뢰, 동행, 협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형성된다.

여성들은 단지 유사한 경험을 공유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인 연대를 맺지 않는다. 동일한 억압을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서로 간에 크고 작은 차이가 존재하며, 이는 지속적인 확인과 실천을 통해 길을 찾아가는 과정을 요구한다.⁵⁴⁾ 예컨대, 『인형의 집 2』에서 노라는 유모나 딸과 격렬한 말다툼을 벌이며, 「나의 우주 영웅에 관하여」의 가운 역시 처음에는 재경 이모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질문과 상호작용의 과정을 통해 마침내 연대하고, 화해하며, 서로에게 공감하게 된다. 본고에 논의된 이 소설들은 ‘가출’과 ‘연대’라는 언뜻 모순되어 보이는 두 행위를 병렬적으로 서사화함으로써, 독립은 꼭 고립의 동의어라는 논리적 전제를 해체하고자 한다. 여성 간의 정신적 계승과 공동체의 형성은 여성 간 대립 구조를 넘어, 가부장제 이후의 ‘여성 윤리 공동체’로 나아가는 가능성을 제시한다.⁵⁵⁾

53) 가상 친족 네트워크(fictive kinship network)는 인류학에서 유래한 개념으로, 혈연이나 법적 관계가 없더라도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친족적 권리와 책임을 인정받는 관계 구조를 말한다. Catherine Lee, *Fictive Kinship: Family Reunification and the Meaning of Race and Nation in American Immigration*, Russell Sage Foundation, 2013, 49-74면 참조.

54) Chandra Talpade Mohanty, *Feminism without Borders: Decolonizing Theory, Practicing Solidarity*, Duke University Press, 2003, 87-105면 참조.

55) 루스 이리가라이(Luce Irigaray)는 성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여성 해방은 ‘남성이 되는 것이

요컨대 전통적인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은 대개 남성 중심의 가족 구조에 종속된 수동적 구성원으로 정의되며, 진정한 공생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어려웠다. 이에 반해 여성 공동체 구축은 구조에 저항하는 실천 논리로 작동하면서, 결혼과 혈연을 기반으로 구축된 위계질서를 벗어난 여성들이 감정적 연대, 윤리적 정체성, 실천적 협력을 바탕으로 자율적이고 비지배적인 인간관계를 구성해 나가는 과정을 강조한다. 김초엽의 소설에서 여성은 더 이상 가족 체계 속 기능적 역할에 머무르지 않으며, 오히려 공동체의 창조자이자 유지자로 재정립된다. 이러한 공동체는 성별 정체성의 고정된 틀을 해체할 뿐만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 생명체 간의 새로운 유대를 맺고, 종(種)과 세대의 경계를 넘어선 윤리적 재구성의 논리를 구현한다.

다시 말하지만, 기술이 이러한 공동체의 유지와 윤리적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단지 개인의 '가출'을 돕는 도구적 수단으로 기능하는 데 그치지 않으며 공동체의 구축과 유지하는 과정에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에 등장하는 릴리가 다양성을 포용하는 새로운 정착지를 창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녀의 "인간 배아 디자인" 기술로 가능하게 된다. 이와 같은 기술 체계는 마을 구조의 안정적 운영을 하는 매개가 되며, 혈연을 넘어서는 감정적 연결을 한다. 다시 말해, 기술은 여성 개인의 자기 권한 부여(self-empowerment)를 위한 수단에 그치지 않고, 개체 간의 윤리 질서를 유지하는 실천적 매

아니라, 여성 주체가 자신의 성별과 성적 표현에 고유한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재발견하는데 있다고 본다. 그녀는 여성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함으로써 '여성 계보'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리개라이는 여성이 서로를 사랑하고 지지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재서사화함으로써 새로운 여성적 역사와 주체성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본다. 여성은 연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함께 가부장제의 억압에 저항하고, 삶 속의 도전 과제를 해결해나가며, 이를 통해 여성 전체의 역량과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다. 그녀의 사상은 여성 공동체의 형성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며, 가부장제 저항, 자아 재구성, 사회·문화 변혁을 위한 실천적 지침으로 기능한다. Luce Irigaray, *This Sex Which Is Not One*, 1977, 23-33, 205-218면 참조.

개체로 작동한다. 이는 공동체 정체성 구조를 재편성하는 윤리적 기능을 수행하며, 포스트휴먼 맥락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공동체의 핵심 기반이다. 다만 기술 발달에만 의지하기보다는, 인식의 변화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술이 반드시 진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퇴보를 초래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결국 진보와 퇴보는 모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세계를 바꾸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해결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이다.⁵⁶⁾ 이는 기술적 진보보다 윤리적이고 주체적 전환의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그녀들이 기술적 역량 강화로 떠난 이후의 실천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는 바로 공동체의 구축이다.

전통적인 ‘가출한 노라’가 침묵 속에 사라졌던 운명과는 달리, 김초엽 소설 속 여성들은 탈출에 그치지 않고, 인지 도약, 기술적 역량 강화, 그리고 타자와의 공감 및 협력을 통해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여성 주체의 새로운 도식을 구축해 간다. 이 세 가지 차원이 어우러지면서, 미래적 맥락 속에서 ‘노라 가출’은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된다. 평가의 척도 또한 이에 따라 전환된다. ‘노라’의 ‘떠남’이 ‘성공’인가 ‘실패’인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떠남의 거리와 강도로 가늠되지 않으며, 친족 구조, 돌봄 등 사회 핵심 제도를 재구성하였는지로 그 구조적 성과가 판단된다.

4. 결어: ‘포스트 노라’의 의미와 SF적 여성 주체의 재구성

본고는 ‘노라 가출’ 모티프를 역사적 기점으로 삼아, 그 모티프가 동시에 SF맥락에서 어떠한 재부호화 경로를 밟는지 고찰해보았다. 분석의 초점은 인물들이 ‘왜 떠나는가’, ‘어떻게 떠나는가’, ‘떠난 이후 무엇을 지향하는가’에 두었다. 전통적 ‘가출’ 서사와 달리, 김초엽의 텍스트에서 ‘떠남’

56) 유선애, 같은 책, 74면.

은 단순한 공간적 단절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신체-기술 장치와 사회관계 구조의 재편을 동반하며 '실천-귀환-유지'의 연쇄를 거치며 윤리적 함의를 지속적으로 갱신한다. 이에 따라 평가 척도도 전통적이고 도덕적 판단에서, 돌봄과 공동체를 매개로 미래의 다원적 사회질서를 창출할 수 있는가로 전환된다. 김초엽의 서사는 떠남이 유지와 전승이 가능한 실천으로 변환될 때, 그것이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미래 지향적 질서 재설계로 작동함을 시사한다. 이는 '노라'라는 고전적 모티프가 SF라는 장르적 특성을 통해 '포스트 노라'로서의 새로운 주체성으로 재구성되는 순간이다.

입센의 노라가 '알 수 없는 곳을 향해 떠난 존재'였다면, 김초엽의 '노라'는 '청사진을 지니고 떠나는 존재'에 가깝다. 이는 떠나기 전의 기록과 조정, 떠난 뒤의 돌아봄과 보수,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로의 계승을 아우르는 그 자체이다. 김초엽 소설 속의 '노라'는 '인지 도약기술적 역량 강화 여성 공동체 구축'의 삼중적 역량을 통해 전통적인 가부장제 질서를 거부하고 미래세계의 출구를 모색하는 주체성을 그려낸다. 결국 이러한 과정에서 '노라 가출'이라는 모티프를 재활성화하고 재구성한다. 이때 '떠남'은 감정적인 충동이나 회피가 아니라, 기술에 의해 강화되고 준비된 출발이며, 기존 질서에 대한 거부와 새로운 세계를 향한 창조적 선언이다. 이 시대의 '노라'들은 더 이상 결혼과 가족이라는 속박에 갇혀 있지 않다. 과학자, 우주비행사, 해커 등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그녀들은 스스로의 운명을 설계하고, 성별과 종(種)을 넘어선 생존 방식을 모색한다. 이렇게 된 '포스트 노라'는 문을 닫고 떠난 존재를 넘어 미래를 향해 문을 여는 설계자이다. 그녀들의 '떠남'은 개인주의적 완결이 아니라, 여성이 문명을 설계하고 사회 구조를 재구성하는 시작점이다. 또한 단순한 공간적 이동도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인지 방식과 존재 논리의 도약이며, 미래를 향한 여성적 출로 탐색이라 할 수 있다. 닫힌 문으로 단절의 장면은 다시 돌아보고 고치는 왕복의 시간으로 치환되며, 떠남은 방향과 목적을 지닌 실행으

로 정리된다. 그녀들의 ‘떠남’은 개인의 탈출을 초월하여 공동체가 낡은 제도를 벗어나 새로운 질서를 구성하는 윤리적 실천이다. 이러한 실천들은 인간 사회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 우주 속에서 인간 사회의 또 다른 가능성을 설계한다. 이러한 재구성 속에서 ‘노라’ 모티프는 SF맥락에서 확장되며, 동시대 현실을 다시 사유하게 만드는 분석적 틀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김초엽 첫 소설집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을 기반으로 여성 SF 맥락에서 떠남의 주체로서 ‘노라’의 재구성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후 연구에서는 후속작들과 함께 더 심화된 방향으로 ‘모성’의 재개념화와 ‘윤리적 공동체’의 구체적 형성 방식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특히 김초엽 작품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비혈연적 돌봄’, ‘대안적 가족 구조’, ‘종(種) 간 연대’ 등은 전통적 모성 규범을 탈구축하고, 새로운 사회적 윤리 감각을 제안하는 주요한 단서로 기능한다.

다른 한편, 본고에서 김초엽의 일부 작품에 한정되며, SF 전체에서 여성 주체의 재현 방식에 대한 포괄적인 비교 연구는 추후 과제로 남아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포스트휴먼적 여성 주체의 형성 과정이 장르나 서사 전략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다양한 문화권에서 ‘떠남’ 모티프의 변주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심화적으로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술, 공동체, 젠더 윤리의 교차 지점을 중심으로, SF서사가 현실 사회의 젠더 감수성과 윤리 질서를 어떻게 재구성하는지에 대한 분석도 더욱 필요하다. 이는 ‘노라 가출’이 더 이상 단순한 문학적 은유가 아니라, 젠더, 기술과 공동체 담론 속에서 지속적으로 재부호화되는 서사 메커니즘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에는 여성 SF의 맥락에서 ‘모성’이 어떻게 윤리적 기능으로 재정의되고, 이로부터 어떤 공동체적 가치가 창출되는지를 중심으로 한 심층적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젠더와 기술, 돌봄 윤리의 교차 지점에서 SF서사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며, 기존 여성주

의 논의에 새로운 이론적 장을 열며, '포스트 노라'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상기시킨다. 이는 SF가 미래를 공상하는 장르를 넘어, 현재의 감수성과 윤리를 다시 배열하는 방식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Henrik Ibsen, 신승미 역, 『인형의 집』, 심야책방, 2015.
김초엽,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허블, 2019.
Lucas Hnath, *A Doll's House, Part 2*, Theatre Communications Group, 2018.

2. 단행본

- 루신, 홍석표 이보경 역, 『루신전집』 1권, 그린비출판사, 2010.
张爱玲, 『流言』, 湖南文藝出版社, 2003.
許慧琦, 『“娜拉”在中国：新女性形象的塑造及其演变, 1900-1930年代』, 上海三聯書店, 2024.
주디스 버틀러, 조현준 역, 『젠더 틀어블』, 문학동네, 2008.
유선애, 『우리가 사랑한 내일들』, 한겨레출판, 2021.
Joan Templeton, *Ibsen's wome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Hans Zinsser, *Rats, Lice and History*, Routledge, 2007.
Judy Wajcman, *Techno Feminism*, Polity, 2004.
Bruno Latour, *Science in Ac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87.
Cynthia Willett, *Maternal Ethics and Other Slave Moralities*, Routledge, 1998.
Chandra Talpade Mohanty, *Feminism without Borders: Decolonizing Theory, Practicing Solidarity*, Duke University Press, 2003.

3. 논문

- 이승희, 「입센의 번역과 성 정치학」, 『여성문학연구』 12, 2003.
윤수미, 「노라를 통해서 본 채만식 소설의 윤리성 : 채만식의 『인형의 집을 나와서』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제59집, 2023.
류진희, 「한국의 입센(Henrik Ibsen) 수용과 노라이즘(Noraism)의 역학」, 『나혜석연구』 제2집, 2010.
김미지, 「『인형의 집』 ‘노라’의 수용 방식과 소설적 변주 양상-1920-30년대 소설과 평문에 원」, 『한국현대문학연구』 제14집, 2003.
연남경, 「여성 SF의 시공간과 포스트휴먼적 전망: 윤이형, 김초엽, 김보영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79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20.
胡開奇, 「娜拉：十五年後的歸來——盧卡斯·納斯『玩偶之家·下集』」, 『戲劇與影視評

論』2018年第5號

宋歌, 「從娜拉到子君: 分析『玩偶之家』與「傷逝」中的女性出走形象」, 『作家天地』2023年 第22號.

Donna Haraway, A Manifesto for Cyborgs: Science, Technology, and Socialist Feminism in the 1980s, *Socialist Review*, no.80, 1985.

Bruno Latour, W. E. Bijker & J. Law (Eds.), Where are the Missing Masses? The sociology of a few mundane artifacts, *Shaping technology / Building society: Studies in sociotechnical change*, MIT Press, 1992.

Fredric Jameson, Utopia as a Method, *Utopia/Dystopia: Conditions of Historical Possibilit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0.

Sara Ruddick, *Maternal Thinking: Toward a Politics of Peace*, Beacon Press, 1989.

<Abstract>

‘Nora’ Leaving the Earth

– Women's Exodus, World-Making and Alternative Futures in
Kim Choyeop' SF

Li, Xia

This paper examines how the motif of Nora's departure, first introduced in Henrik Ibsen's *A Doll's House*, has been reinterpreted across cultures since the 19th century, and traces its transformation in the science fiction (SF) writings of Korean author Kim Choyeop. Nora is not merely a figure who escapes domestic life, but a long-standing symbol of modern women's self-awareness and subject formation. This study argues that the Nora motif has rearticulated as a narrative of women's agency, forged through its convergence with contemporary discourses of science and technology, gender politics, and ethical community. In particular, the central women characters in *If We Cannot Go at the Speed of Light* actively resist patriarchal oppression and engage in world-making mediated by technology, emotion, and solidarity.

To analyze the contemporary reconfiguration of the Nora motif, this paper proposes a tripartite framework: (1) cognitive leap—a transformative shift in consciousness that challenges patriarchal epistemes; (2) technological empowerment—the appropriation of technology for self-determination and social reconstruction; and (3) the construction of women's community—a solidarity-based, care-centered collective subjectivity. Through these elements, Kim Choyeop's SF reimagines survival strategies and ethical systems beyond the limitations

of traditional gendered subjectivity. Notably, the fluid, post-familial, and non-heteronormative models of community offer critical insight into the intersection of gender, technology, and ethics in contemporary feminist SF.

In conclusion, this study explores how the symbolic figure of 'Nora' and the enduring question of 'what happens after she leaves'—are reanimated within contemporary women's SF. Rather than reiterating a 19th-century drama of individual exit, these narratives offer feminist literary interventions that envision both critical consciousness and material alternatives for collective futures. In Kim Choyeop's work, the act of 'leaving' is no longer a passive gesture of retreat, but a proactive starting point for world-making—opening up new possibilities for women's narratives in the post-Nora era.

Key words: *A Doll's House*, Nora motif, women's exodus, world-making, feminist science fiction, Kim Choyeop

투 고 일: 2025년 11월 9일

심 사 일: 2025년 12월 10일

게재확정일: 2025년 12월 12일

수정마감일: 2025년 12월 28일